

키몬다-샌디스크, 휴대폰용 MCP 공동 개발



D램 업체 키몬다코리아는 샌디스크와 손을 잡고 이 회사의 낸드 플래시메모리와 컨트롤러, 자사의 저전력 모바일 D램 기술을 이용해 휴대폰용 복합칩(MCP)을 공동 개발, 제조키로 했다고 4월 27일 발표했다.

두 회사는 급증하는 대용량 고집적 메모리 솔루션 수요를 MCP 사업에 나섰으며, 합작 설립한 포르투갈 소재의 팹에서 개발, 생산을 아우를 예정이다.

두 회사는 이번에 생산할 MCP를 양사 판매채널을 통해 휴대폰 제조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사업을 통해 각각 보유한 메모리 기술의 강점을 결합하고, 낸드와 모바일 D램을 이용한 광범위한 MCP 제품을 공급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미국 마이스페이스, 중국 진출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MySpace)'가 마침내 중국에 진출했다.

'마이스페이스 차이나'(www.myspace.cn)가 최근 중국에서 시험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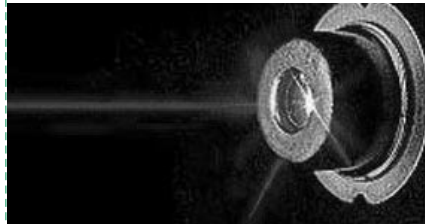
마이스페이스의 모기업인 뉴스코프는 중국 현지업체와 합작, 마이스페이스 브랜



드와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이트 운영은 현지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마이스페이스 차이나의 CEO는 루어 찬전 MSN차이나 사장이 임명됐다. 마이스페이스 차이나에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마이스페이스와 출판사인 IDG, 차이나 브로드밴드 캐피탈 파트너스 등이 지분참여를 하지만 누가 얼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가상공간에서 사진과 음악, 동영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10대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마이스페이스는 1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를 갖고 있다.

소니, 청색LD시장 본격 가세



소니가 차세대 DVD 기기의 핵심부품인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LD) 시장에 본격 가세함에 따라 일본 기업들 간에 시장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E타임스 등 외신들은 소니가 월 170만 개 규모의 청색 LD 생산능력을 갖추고 제품 공급에 나설 방침이라고 4월 23일 보도했다.

이 제품은 출력용량 170mW로, 듀얼-레이어(dual-layer) 디스크에서 4배속의

저장속도를 지원한다. 제품 가격은 패키지 크기에 따라 4500~5000엔이다. 샘플 공급은 이달 중에 시작된다. 소니는 8배속 저장속도를 지원하는 240mW 제품도 앞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출력용량이 높아질수록 고성능 DVD 기기 제작이 가능해진다.

청자색 LD라고도 불리는 청색 LD는 기존의 DVD 플레이어에 사용되는 적색 LD에 비해 데이터 읽기/쓰기 속도가 빨라 블루레이 디스크나 HD-DVD 등 첨단 DVD 시스템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소니는 그동안 청색 LD를 소량 생산해 플레이스테이션3(PS3) 게임기용으로만 사용해 왔으나 이번에 생산 규모를 늘려 니치아(Nichia)와 샤프 등 기존 업체들과 맞서게 됐다.

구글, 1/4분기 수익 69% 급증... 기대 이상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미국 구글의 1/4분기 실적이 월가의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1/4분기 순이익이 10억달러, 주당 3.18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4월 1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9천230만달러, 주당 1.95달러보다 69% 늘어난 것이다.

스톡옵션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주당 3.68달러로 블룸버그가 조사한 월가 애널리스트 27명의 평균 전망치인 주당 3.28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구글의 1/4분기 매출액은 66% 늘어난 25억3천만달러를 기록해 월가 전망치인 25억달러를 상회했다.

구글의 이 같은 실적 호전은 미국과 해외

시장의 광고 매출이 늘어난 데다 야후등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바, 연내 16GB 낸드 플래시 양산 돌입

일본이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작·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지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활용할 수 있는 '고도 지도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4월 2일 일본 정부는 방재·복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고도 지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개인 정보를 포함한 지도 정보는 제외된다.

지도는 축척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지도라도 합쳐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전자화된 지도는 보존 형식이 달라 복수의 지도를 자유롭게 합치거나 검색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홍수 등 재난 발생시 특정 지역의 침수 피해 상황과 같은 지역의 노인 주거상황을 나타내는 지도를 합쳐 표시할 수 있다면 기능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 포장이나 정체 정보 등도 합쳐서 검색하면 운전자가 외출시 막히지 않는 길을 사전에 검색할 수 있다.

PMP·MP3P 시장 2011년 2억6860만대 달할 듯

세계 PMP 및 MP3플레이어 시장 규모가 2011년 2억6860만대, 금액으로는 2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05년 1억2870만대 규모였던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및 MP3플레이어 시장이 연평균 13% 성장해 2011년에는 2억6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대만 디지털타임스가 보도했다.

금액 면에서는 2005년 현재 140억달러에서 연평균 7.4%가 성장, 2011년 2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올해는 지난해 180억달러에서 206억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4.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불과 5~6년 만에 PMP와 MP3플레이어 시장이 수량과 매출 면에서 두 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것은 초고속인터넷의 확산과 디지털 콘텐츠의 증가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모토로라, 테라온커뮤니케이션 시스템스 인수



모토로라가 디지털TV SW와 장비 업체인 테라온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현금 1억4000만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24일 보도했다.

모토로라는 테라온의 주식 1주당 1.80달러를 지불하고 이 회사의 지분 모두를 인수한다.

모토로라의 테라온 인수는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현재 모토로라는 매출 대부분을 휴대폰 부문에서 거두고 있지만 지난 몇 분기 동안 시장 점

유율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모토로라는 이미 케이블TV 업체용 셋톱박스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테라온의 SW와 HW 제품을 자사 제품에 통합함으로써 비디오 처리 솔루션 판매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댄 몰로니 모토로라 커넥티드 홈 솔루션 담당 사장은 "테라온 인수는 타깃 광고와 프로그램 삽입 솔루션 같은 차세대 서비스용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스팩 칩 판매 사업부 신설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스팩 칩 판매 담당 사업부를 신설했다고 3월 28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선이 하드웨어 사업을 재조정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선은 사업부 신설을 통해 1년 전 중단했던 칩 판매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새 사업부는 예전에 스팩 칩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엔 스토리지 담당 총괄부사장이 이끌 예정이다.

1990년대에 선은 선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문을 통해 스팩 칩을 판매했으나, 스팩 칩을 사용하는 서버 업체들이 없어 결국 판매를 중단하고 자체 서버에만 탑재해 왔다.

선의 스팩 칩 판매가 부진했던 것은 주요 서버 업체들이 자체 칩을 사용하거나 인텔과 AMD의 칩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IBM은 자체 개발한 파워칩, HP는 인텔과 공동 개발한 아이태니엄칩, 델은 인텔의 제온이나 AMD의 옵테론 같은 x86 계열 칩을 사용한다.